

32 전도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4:3~42



이 우물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
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
아나는 샘물이 되리
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여 피해 갔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햇빛이 뜨거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예수님: “물을 좀 달라.”

여인: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쩌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우물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 암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4)

여인: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할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로라.”

여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하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뜨러왔을까요? ()

- ① 물이 급하게 필요해서
- ② 사람들이 많으면 물을 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 ③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싫어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말을 걸으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하여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

- ① 귀찮았다.
- ② 물을 뜨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 ③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는 물을 받고 싶어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전도하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20)

예 화



너무 귀한 것은 값을 따질 수 없다

한 유명한 변호사의 부인이 한번은 유럽에서 그녀가 발견한 그블랭의 식물에 대하여 남편에게 전보를 쳤다. 그 가격이 2만 5천 달러였는데 그녀가 그것을 사도 좋은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안 됨, 가격이 너무 비쌌" (No, price too high)이라고 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녀는 직물을 사가지고 유럽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은 왜 자신의 대답을 무시했는가를 물었고 그날 부부는 심하게 다투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비싸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너무도 귀한 그의 아들의 피까지도 너무 귀한 것은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 화



존 하퍼의 전도

1912년 4월 14일, 바다에서 세계 최대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을 항해하다 빙산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구명조끼와 구명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려 1,617명이나 죽었습니다. 존 하퍼도 차가운 바다에 떨어졌지만, 헤엄치며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하퍼는 너무나 지쳐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인간 힘을 쓰면서 한 젊은이에게로 헤엄쳐 갔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아니요!"



파도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들이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하퍼가 좀 큰 소리로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는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 때 큰 파도가 하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에, 그 젊은이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존 하퍼가 죽어가며 전도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